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2024 봄 학기 개강

서울교회는 문화 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2024 봄 학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4년도 봄 학기:4. 13일(토)-6. 16(주일), 10주 코스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반은 자체 운영)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5. 구글신청서 양식: 아래 QR코드 참조
- ※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 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요 통기타·베이스 기타반, 미술은 강사 사정으로 휴강합니다.
※ 재능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강사 지원을 환영합니다.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윤식 집사
	클래식기타(중급반)		12:40-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성악	즐거움 성악교실	토	11: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연기	나를 찾아가는 힐링연기	토	12:00-	10주	702	박재현 선생
댄스	조이 워십(한국무용)	목	13:30-	10주	704	조경숙 권사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위하여



교회는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회 내외부 환경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각 층의 왁스작업과 지하층과 주차장 도색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번져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주일예배 성도의 증가로 주차장이 많이 혼잡합니다. 주차장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

사 40:27-31



손달익 위임목사

평생 실패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인류사회 전체도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 Homo Sapiens(생각하는 인간), Homo Faber(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Homo Esperance(희망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역경과 시련과 실패의 쓴 잔을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인간 삶의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John Maxwell의 저서 '다시 일어서는 힘'에서 저자는 '한계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3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내 안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각, 둘째는 내 안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힘을 말하는 능력, 셋째는 가능성을 행동으로 만드는 선택과 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self는 자기 자신이 가진 내면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불가항력의 어려움을 당했고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 역시 사람과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겼으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왔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참담한 역사 상황에 대하여 사 1-39장까지의 말씀이 책망과 진노의 말씀이라면 사 40장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소망 넘치는 말씀입니다.

1. 희망을 버린 사람들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왕국의 몰락이 눈앞에 와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적군은 곧 물러갈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희망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무슨 다른 희망이 있겠느냐?'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나서며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아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징계하시거나 하나님 백성들이 몰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과거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고쳐 미래지향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이지 과거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 미래를 절망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거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를 최악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self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와 죄에 얽매어 스스로를 정죄하고 미래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승리해야 합니다.

2.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꿈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27절).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계시고, 그들의 간절한 외침은 허공에 사라질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신음했습니다. 포로지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쪽 페르시아에서 서서히 역사의 새 기운이 움트게 하셨습니다.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한 메데파사의 세력이 갑자기 바벨론을 위협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군주 고레스는 포로들에 대한 바벨론의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BC 536년 유대인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했지만 그들이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

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사 62:1).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멈추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진정한 미래학자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분석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역사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는 말입니다. 세상에 계실 때 피곤에 지쳐 쓰러지도록 일하시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일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고쳐
미래지향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이지
과거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3. 희망이 이루어지는 능력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28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라고 권고합니다.(31절) 새 힘은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힘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제어하고 방해할 수 있는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에게self는 누구나 지치고 곤비할 때가 있고 이제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때는 하나님께 새 힘을 받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힘을 얻는 사람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새 힘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앙망하십시오. 기도생활도 봉사와 헌신도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애동함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다시 도전해야 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삶과 역사의 새 장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임우택 안수집사
(스데반회 회장)

부활절 후 4월 첫 주간, 발치의 붉은 꽃잔디에서부터 싸리꽃, 목련꽃, 하늘을 수놓는 벚꽃까지 우리의 마음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향연을 펼치고 있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게 하는 은혜와 축복

의 부활의 계절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탄천과 양재천을 보면서 염려가 앞섰습니다. 교회 사정으로 1주 전에 청소 일정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렇게 봄꽃 놀이하기에 좋은 날인데, 지하주차장으로 물청소 하러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 걱정이 앞서 잠 못 이루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청소 시작 30분 전에 내가 먼

저 소방용 호스를 잡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트랜치를 총무 이 집사님, 사무국 안 집사님과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10시 정각에 위임목사님의 시작 기도를 받고 청소를 시작하면서부터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서울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이구나!!!

저의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핑도는 감동의 체험과 은혜의 시간이 연속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어 거동하시기에 어려워 보이는 선배 유 집사님, 무릎 수술을 하셔서 회복 중이신 김 집사님, 토요일 생업을 접고 오신 김 집사님, 선약을 깨고 오신 박 집사님, 갓난 어린아이를 맡기고 오신 임 집사님, 앞장서서 봉걸레를 잡고 밀고 닦으시는 장로님 등등 34분의 자발적인 헌신 봉사 노력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흘리는 땀방울을 훔치는 모습은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땀 흘리시는 예

수님을, 주차장 바닥 목은 때를 씻어내는 수많은 발걸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물청소 후 물기를 제거하여 다시 반짝이는 주차장 바닥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8층 식당에 마련된 권사님들의 정성 담은 보쌈정식은 힘듦의 노고를 녹아내렸고, 맛있고 풍성하다는 칭찬과 격려 속에 50여 분이 사랑을 나누는 소통과 교제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내사랑 서울교회의 저력, 보이는 곳에서는 몸으로 섬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간절한 기도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앞길에 놓인 4대 목사님 청빙 등 중차대한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되어, 이종윤 원로 목사님이 주창하셨던 성도 정성 100%에 하나님 은혜 100%를 더하여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의 100년 대계를 달려가는 원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멀티미디어부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미디어 사역을 아시나요?



이승준 안수집사
(멀티미디어 홍보팀)

건강, 출장 등의 개인적 여건으로 교회 왕래가 어렵거나 또다시 주일예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유튜브 등의 채널을 활용하시거나, 자녀들의 교회 학교 활동사진을 카카오톡이나 밴드, 문자를 통해 확인도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 찬양의 공유 등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지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뉴미디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소통 채널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 이런 기술과 매체는 어느새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SNS와 뉴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는 이리도 많이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전도는 아직도 현장 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의 효과와 파급력을 잘 아는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현장 전도와 함께 "온라인 미디어"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도하는 "미디어 사역"을 시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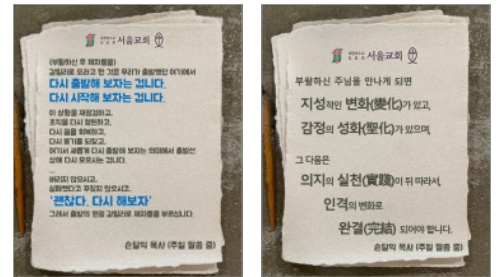
우리 교회 70인전도대처럼 매주 대치역과 은마아파트 사거리 등에서 직접 대면하며 전도하는 오프라인 전도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교회라는 울타리로 초대하는 일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회도 현재 유튜브 예배 송출, 홈페이지 운영, 문자발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외부에 교회를 소개하는 현수막, 포스터, 외부 대형 TV 등의 활용되는 수단들이 적어,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서울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닫힌 교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회의 다양한 활동 모습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점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교회가 어떤 곳인

(4면에서 계속)



서울교회 유튜브 화면과 short form

서울교회 인스타그램

(3면에 이어서)
지 알릴 준비된 내용들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노출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팀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시도해 보려고 하며, 여러 성도들의 관심,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 1)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 2) 촬영에 소질이 있으신 분
- 3)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분

4) 제작·편집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꾸준히 참여하여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중심지인 대치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올바른 신앙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그 엄중한 사역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서울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모집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PD (총괄 운영)
- 작가(구성,기획)
- 촬영(비디오,편집)
- 운영(SNS, 홈페이지 등)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승준 안수집사, 김해연 장로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02)558-1106 (교회 대표전화)

교회역사 강의-한국교회사 50장면 종강

2023년 2월 5일(주일)부터 손달의 위임목사님이 기고하셨던 "한국교회사"가 오늘 50회를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신앙강좌부(지도:양정호 목사)에서 강의 중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16-17세기 종교개혁의 꽃을 피우면서 유럽 전역에서 카톨릭에 대하여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작성되고 출판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에서 출판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동안 귀한 글을 주신 손달의 위임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어나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경자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조선 선교의 여명



손달 위임목사



박희연 목사

신교가 불가능했던 시기
어둠이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두드린 것은
한국교회의 여명을 상징하는 사제로
기약되어야 할 것이다.

자세를 들은 편지에도 답한 사역자이던 열연이던 선교사였던 열연의 열연은 남인 사역자이기도 하다. 그는 1802년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서해안 해안지역에 세 기간 동안의 주교를 하여 주교임을 겸임하고 이어서 상해를 방문하면서 그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문무가 복잡하고 거대한 대담을 요구하면서 주교로서의 호반은 물론이고 고고하고, 귀족에는 자신의 한국 말 언어를 잘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유능한 사역자로서 조선의 여명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

1809년 8월 22일 제2회 개척선교회를 시작으로 1813년 3월 25일 영국에서 1차 안수를 받고 1814년 1월 15일 중국 상해에 도착하고 조선의 문무가 복잡하고 거대한 대담을 요구하면서 주교로서의 호반은 물론이고 고고하고, 귀족에는 자신의 한국 말 언어를 잘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유능한 사역자로서 조선의 여명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

1809년 8월 22일 제2회 개척선교회를 시작으로 1813년 3월 25일 영국에서 1차 안수를 받고 1814년 1월 15일 중국 상해에 도착하고 조선의 문무가 복잡하고 거대한 대담을 요구하면서 주교로서의 호반은 물론이고 고고하고, 귀족에는 자신의 한국 말 언어를 잘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유능한 사역자로서 조선의 여명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

1809년 8월 22일 제2회 개척선교회를 시작으로 1813년 3월 25일 영국에서 1차 안수를 받고 1814년 1월 15일 중국 상해에 도착하고 조선의 문무가 복잡하고 거대한 대담을 요구하면서 주교로서의 호반은 물론이고 고고하고, 귀족에는 자신의 한국 말 언어를 잘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유능한 사역자로서 조선의 여명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

1809년 8월 22일 제2회 개척선교회를 시작으로 1813년 3월 25일 영국에서 1차 안수를 받고 1814년 1월 15일 중국 상해에 도착하고 조선의 문무가 복잡하고 거대한 대담을 요구하면서 주교로서의 호반은 물론이고 고고하고, 귀족에는 자신의 한국 말 언어를 잘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유능한 사역자로서 조선의 여명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

▲ 2023년 2월 5일자 첫 강의 "조선 선교의 여명"
◀ Heidelberg Catechismus 1563

성도의 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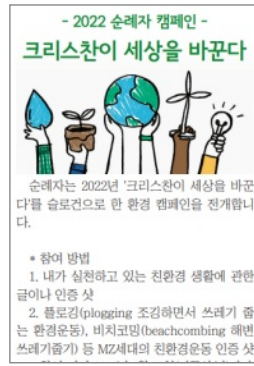


▲▲ 지난 4월 10일(수) 수요일예배 후 새가족부 야외 모임
▲▲ 지난 4월 10일(수) 투표를 마친 바울선교회 야외 모임

기독교 환경운동



- ▶ 온산병의 심각성을 보도한 1985년 6월 12일 자 조선일보
- ▶ 2023년 환경주일 배너
- ▶ 우리 교회 순례자에서 진행한 환경캠페인
- ▶▶ 온누리교회 환경캠페인



세계 교회의 환경운동은 1970년대 정책화되었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의 제5차 총회는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JPSS: A Just, Participatory, Sustainable Society)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였다. JPSS는 자연이 지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무분별한 개발이 인류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JPSS는 1983년 WCC 제6차 밴쿠버 총회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 '창조질서의 보전'은 자연과 인간이 똑같은 피조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 아래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 사고였다. 이후 JPIC는 기독교 신학과 사회운동의 핵심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한국의 환경은 파괴되고 있었다.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중화학공업이 활성화되자 환경문제와 피해사례가 속출하였다. 정부는 1963년 '공해방지법',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했지만 경제성장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실효성은 없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없었으며 환경오염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위한 활동에 나선 사례가 발견될 뿐이다.

1982년 기독교와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한국공해문제연구소'(공문연)는 본격적인 한국 환경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공문연은 기독교 성직자들의 기획으로 출범했다. 1980년 호주로 유학 간 인명진 목사는 호주 신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고리원 자력발전소의 고장 소식을 접했다. 인명진은 한국의 시급한 문제를 민주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한국의 뉴스로 독재가 아닌 핵발전소 고장이 실리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만난 호주사람들은 한국의 민주화는 시간문제이지만 공해와 환경과피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1981년 귀국한 인명진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총무인 권호경 목사를 만나 환경운동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호경은 환

경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경직된 사회분위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톨릭에 동참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1982년 4월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 공문연이 출범하였다.

공문연은 공해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개강좌를 꾸준히 열고 운동가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YMCA와 CBS 역시 공문연과 협력하며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에 나섰다. 공문연은 1984년 5월 25일에 매년 6월 첫 주를 환경주일로 정하고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날인 1984년 6월 5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반공해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공문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발생한 환경병 '온산병'을 사회문제로 여론화하는데 성공했다. 1974년 공단으로 지정된 후 1980년대 초부터 과질이 발행하고 있던 온산읍에 몇 년 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공문연은 1985년 1월 7일에 결과 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는 1월 18일자 신문에 이 보고회를 기사화하여 '온산공단 주변 주민 5백여 명이 이타이이타이병과 유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온산병은 '한국 최초의 집단 공해병'이라는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전환되었다. 환경운동이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이 자유로워지고 다른 환경운동 단체들이 설립되자 공문연은 한국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로 개칭했다. 공해 문제를 넘어 반핵과 평화문제를 포함하는 진취적인 단체로 성격변화를 꾀한 것이었다. 때마침 JPIC세계대회가 1990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한국교회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1990년 감리회에 환경선교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92년에는 우리 교단과 대한성공회의 환경보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구세군과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환경위원회를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복음교회는 군산 주민들과 함께 동양화학의 공장철거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고 구세군은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폐신

문지 재활용 등 생활환경운동을 전개했다. 기독교 내의 분위기가 바뀌자 그동안 종교계와 시민계를 두루 아우르던 반핵반공해연구소는 1992년 이름을 '한국교회환경연구소'로 바꾸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환경운동단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경연구소는 1997년 "창조보전을 위한 기독교환경운동연대"(약칭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하 기환연)로 이름을 바꾸면서 부설기관으로 한국교회환경연구소를 두기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출범 선언문에서 "기독교환경운동의 연대로서 보수, 진보를 초월한 초교파적인 운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2010년대까지 환경문제는 진보적인 이념 문제로 여겨졌고, 보수적인 기독교계에 환경운동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었다.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택배상자 재활용하기, 겨울철 내복 입기, 문풍지 부착하기, 쓰지 않는 플러그 뽑아두기' 등의 개인윤리적 실천의 성격으로 정치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다.

현재 기후위기는 이념이 아닌 생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021년 3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했다. 출범 당시 이 기구에 참여한 단체는 교회 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서한국, 예수살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였고 여기에 산울림마을교회, 서울제일교회, 샘터교회가 교회 단위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기환연은 2021년 5월 NCKK와 함께 '2050년 한국교회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이제 교회도 환경을 생각하며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기독교의 신학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문제라고 여겨왔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갈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 앞에서야 인간과 자연의 사이의 평화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길 시점이다.

사라의 정원



사라의 정원을 이용하는 성도의 증가와 더워지는 날씨를 고려해 9층 옥상 야외에 좌석을 준비하였습니다.

식사 제공



- 7교구
임선철 은퇴안수집사· 이영주 권사 가정
(이영주 권사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70인전도대 4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1	자원자	스데반회	4.3	도르가, 루디아, 뵈뵈
4.7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4.10	국회의원선거
4.14	자원자	바울, 엘리야	4.17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4.21	자원자	모세	4.24	리브가
4.28	자원자	이삭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4월15일	월	왕상 1-2
4월16일	화	왕상 3-4
4월17일	수	왕상 5-7
4월18일	목	왕상 8-9
4월19일	금	왕상 10-11
4월20일	토	왕상 12-13
4월21일	주일	왕상 14-16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레19	시23,24	전2	딤편4
레20	시25	전3	딤편5
레21	시26,27	전4	딤편6
레22	시28,29	전5	딤편1
레23	시30	전6	딤편2
레24	시31	전7	딤편3
레25	시32	전8	딤편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증거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서울교회에 제4대 담임목사 청빙과정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70인전도대와 성도들의 전도현장, 선교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3.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다스려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